

문화

비닐하우스 극장에서선 '당신도 주인공'

광주에 비닐하우스 극장이 생긴다. 이곳에선 재즈 피아니스트와 클래식 연주자들이 공연을 하고, 유쾌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영화 감상회, 바리스타와 함께 하는 커피 워크숍, 탱고 워크숍도 열린다. 또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극장이기도 하다.

오는 10월1일~16일까지 열리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기간 동안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앞에 비닐하우스극장 '폴뿌리'가 문을 연다.

비닐하우스가 어린 새싹을 키워내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극장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규약서가 프로그래머로 참여한 비닐하우스극장은 예술인의 창작세계, 문화예술커뮤니티, 문화예술공연, 재작프로젝트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0월 1일 공연예술제 참가팀인 프랑스 '뤼 베에론' 극단의 '카밀라'로

문을 여는 비닐하우스 극장의 프로그램은 다채롭다. 배우 윤동환의 '드라마게임', 청소년 퓨전 마당극단 나르사의 '달빛무대에 서다', 빛소리 중창단의 '가을의 어느 멋진 날', 임택준·탱고 워크숍도 열린다. 또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극장이기도 하다.

오는 10월1일~16일까지 열리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기간 동안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앞에 비닐하우스극장 '폴뿌리'가 문을 연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많다. 라포스타의 '탱고의 향기&탱고 워크숍', 바흐의 커피 칸타타&와인음악여행,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핸드드립 커피 워크숍' 등이 이어진다.

또 안철씨가 해설자로 참여하는 '영상과 음악으로 만나는 재미난 발

레',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산책', '밥 도시의 탄생'과 '호프만의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네마 클럽'도 놓치면 아까운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공연예술제를 관람하는 관객들과 공연자들의 사인과 소망글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새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비닐하우스극장 관람객 가운데 매일 20명에게는 공연예술제 관람 티켓도 증정한다.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도 '씨앗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비닐하우스극장을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이메일(fls01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비닐하우스극장은 21일~30일까지 열리는 전국무용제 기간에도 야외 공연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062-511-12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닐하우스극장 조감도>

내달 1일~16일 광주공연예술제 기간 문예회관 대극장 앞 극장 '폴뿌리' 오픈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워크숍 재즈이야기·탱고의 향기 등 눈길



<윤동환>



<최승원>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9월엔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

20일 광주콘텐츠지원센터 민요·서양음악 조합 새로워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9월 행사가 오는 20일 오후7시30분 광주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영상관(옛 KBS 광주방송 송극)에서 열린다.

달거리 공연은 북한 뺑공장을 돕기 위해 가수 김원중씨가 매일 셋째주 월요일 열고 있는 행사다. 9월의 초대손님은 소리꾼 김용우(사진)다.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김씨는 독창적인 음악 색깔로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인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용배·조광래·박병천·오복녀씨 등에게 사물놀이, 진도 들노래 등을 사사하며 음악의 기초를 다진 김씨는 이후 민요와 서양음악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게 소리', '어이 얼어자리' 등 다섯장의 독집 음반을 낸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음반 수록곡 등



을 들려준다 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김원중의 노트나루, 작곡가 김현욱씨의 'Happy Birthday' 번주, 화가 주홍의 '핑거 페인팅 샌드 애니메이션', 국악인 윤진철의 '소리마실', 노래 그룹 '악동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오프닝, 영화 속 노래 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 010-2943-5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설립 공청회

“재단 독립성 유지·자율성 확보 최우선”

‘문화재단의 독립성 유지와 자율성 확보.’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재)광주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단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시가 기금을 출연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자치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문화재단 허은광 문화진흥실장은 “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가 정책과 사업을 입안하고 재단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허실장은 “인천의 경우 2010년까지 기금 1천억원 확보가 목표였지만 현재 500억원에 머물고 있다”며 “광주의 경우 시의 기금 목표액의 지속적인 출연과 함께 일반회계 보조금 확대, 기업 메세나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실장은 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현황



(재)광주문화재단 설립 준비 공청회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관(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씨는 문화재단 설치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자치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확실한 권한 이양 의지 ▲지역문화예술계와의 합의 ▲위탁사업, 기관 운영 등 재단의 사업 영역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일부 패널들은 또 광주문화재단이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재단이 문화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재단 고유 업무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광주공연예술재단과 함께 해산 절차를 밟은 후 광주문화재단으로 통합될

광주문화예술위원회 오건택 위원장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책실 기능 등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히고 “특히 고생한 직원들을 선별 채용하겠다는 점에 반야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진 재단 설립 준비단장은 “문화재단이 발족한다고 해서 문진위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대,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직일 채용과 관련해서는 시가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2~3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문화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소년인터넷백장 대상 운문 조오성·산문 이지영

문학추진작가회(회장 노갑진)가 주최하고 한림문화재단이 후원한 제12회 남도청소년인터넷백장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대회결과 운문부 대상은 무등초 조오성(무등초 1년)의 '나만 보면', 이교승(장흥초 3년)의 '늑사의 고통', 박한빛(광주 실용여고 3년)의 '노을을 보며', 산문부 대상은 이지영(목동부영초 6년)의 '운동회', 고아라(담양창령고 3년)의 '친구, 그 이상의 소중한'에게 돌아갔다. 중학생 산문부는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9일 오후 3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영광성당 첫번째 순교자 기념성당 지정

전주고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16일 영광성당(주임신부 문봉우)을 대교구 산하 첫번째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광지역은 1791년 신해박해 이전부터 천주교가 전해진 곳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2명이 순교했는데 아직도 영광 성당 인근에는 이들이 처형된 순교터가 남아있다.

이번에 영광성당이 순교자 성당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3월 열린 신유박해 순교자 학술회의에서 영광성당 소속 신자가 광주대교구 관내 첫 순교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첫 순교자는

1872년 병인박해 때 나무 무화담에서 순교한 강영원 바오로 등 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화백과 양반 오씨가 순교자 인정됨으로써 광주대교구의 첫 순교자와 관련한 교회가 바뀌게 됐다.

전주고 광주대교구 관계자는 “영광은 전북 전주지역과 더불어 호남에서 천주교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라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교계 내부에서 공식화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광주대교구와 영광군은 신유박해 당시 영광지역에서 순교한 이들에 대한 연구작업을 벌여왔다. /김대성기자 bigkim@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작

MUSICAL
Jack the Ripper
잭더리퍼

19세기말 영국에서 발생한 실제 연쇄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범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슬라퍼와 그 속에 감춰진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안재욱 · 유준상 · 신성우 · 김법래 · 김성민 · 민영기 · 최민철 · 소냐 등 최고의 출연진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과 특히 감각적인 무용과 넘버와 자유자재로 번신하는 회전무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화음은 깊은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10월1일(금) ~ 2일(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금요일 : 20시 / 토요일 : 15시, 19시30분(2일3회)] VIP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062) 220-0541 * 1588-0766 | 인터넷예매 : 티켓마루(ticketmaru.co.kr), 인터파크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재)광주공연예술재단 · 주 관 : (재)광주공연예술재단, 공연마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하어틀란의 꿈
10. 2(토), 10. 9(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키리리
10. 1(금) 10. 2(토)
10. 9(일)
문화예술회관 광장
충무로 우체국 앞
광주역

▲MALSON
10. 5(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워터피어
10. 5(화), 10. 6(수)
전남대학교

▲Water Floor/ Kellb
10. 8(금), 10. 9(토)
광주 원천(구 태평극장 부리)

▲고래의 꿈
10. 11(월)
금남로 일대

▲메베스
10. 12(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미녀는 사람들
10. 14(목)
5.18 기념공원

▲아시아의 함축
10. 10(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스제의 바이올린
10. 13(수)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아시아공동작업
내 청문을 두드리는 전쟁
10. 15(금)
빛고을 시민 문화관

▲스름
10. 16(토)
문화예술회관 대극장